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1 Number 01 **01** 2013



ACT *News*

탐사여행 / 집중세미나 / 창조과학학교 / 세미나

2013년 ACT

지난 해에 이어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활발하게 진행 될 예정입니다. 2012년 12월 10일 현재 38 번의 탐사여행이 이미 예약 되어 있어 탐사여행이 진행되는 날 수만해도 170일간이 넘습니다. 이 중 5 번은 2세들을 위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탐사여행입니다. 각 교회 세미나와 학교 강의도 새 해가 되기 전에 이미 많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도 감사 드립니다. 새 해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일들이 더욱 널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선포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만 부회장을 비롯한 다른 사역자들의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난 11월 12-14일 나성 순복음교회(담임목사 진유철)에서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는 지난 2월에 남미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탐사여행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탐사여행 동안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C 온누리교회 집중 세미나

지난 11월 10 일과 17 일 두 번의 토요일에 걸쳐 창조과학집중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는 매 년 창조과학학교를 해 오고 있었는데 올 해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집중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10 주에 걸쳐서 진행되는 창조과학학교보다는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데 더 효과적인 면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ANC 온누리교회는 매 년 메모리얼데이에 창조과학탐사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카고 창조과학 학교 종강

지난 월요일(11월 19일) 중부 창조과학학교 13기가 종강하였습니다. 시카고 한인제일장로교회에서 9월 17일 시작된 10주 과정에 매주 22명이 참여하였는데 서삼선 담임 목

사님과 함께 14명이 수료증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봄 14기 창조과학학교는 한미 장로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 세미나

김선옥 박사님이 인도하는 영어 창조과학 세미나가 Church of Life in Jesus, Highland, MD (11월 11일)과 University of Nations YWAM, Kona HI(11월 26-27일)에서 열렸습니다.



창조사역 집중훈련 시작

제 4기 창조사역 집중훈련(ITCM-1)이 12월 21일부터 8주간 시작 됩니다. 대학생4명과 졸업생 2명 등 총 6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효과적인 교육과 교육 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창조과학학교 13기



기적에 대하여

성경에는 수 많은 기적(wonders)과 이적(miracles)들이 등장한다. 또한 표적(signs)도 등장한다. 표적은 기적이나 이적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표적은 구체적인 방향과 목적을 보여주려고 할 때 등장한다. 어떤 모양으로 등장하든지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증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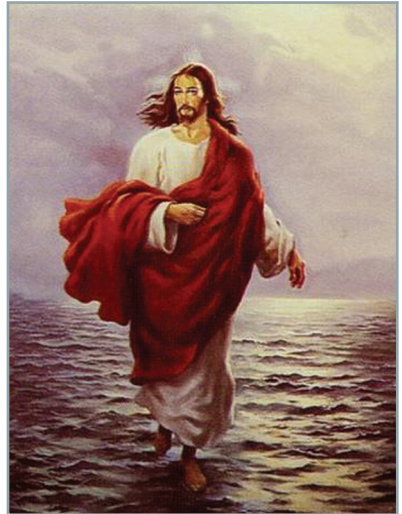
기적은 일반적으로 '자연의 기본법칙이나 자연과정의 정상적 영역을 벗어난 사건'으로 정의된다. 그런 면에서 기적을 이해하는 데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의 기본 법칙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자연, 즉 물질과 에너지의 가장 근본적인 학문 영역을 열역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법칙은 제 1법칙과 제 2법칙이다.

제 1법칙은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써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과학자들은 이 법칙을 우주에 관한 법칙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법칙이라는데 동의한다. 제 2법칙은 소위 엔트로피 법칙으로 불리는데 우주는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무질서한 상태를 향해 나아간다는 법칙이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계속

수리하지 않는 한 자동차는 결국 폐차되고, 시계도 결국 정지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두 법칙은 물질과 에너지에 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왜 이런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우리는 이 법칙 안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기적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두 법칙에 위배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거대한 물 벽을 만드신 사건, 만나를 내리신 사건, 출애굽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않은 사건, 여호수아의 태양을 멈춘 사건, 외부에서 주입되는 약이나 수술 없이도 일어나는 많은 치유 사건 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위의 근본법칙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아주 어려운 사건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비가 내린 사건,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난 사건 등이 이에 속할 것이다.

성경의 첫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말씀은 시간(태초)과 공간(하늘)과 물질(지구)을 창조하신 초월자(하나님)께서 ‘무에서 유’(ex nihilo)의 창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근본법칙이나 확률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그 근본법칙과 확률을 창조하신 그 초월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경적 정의로써 기적은 일반적인 정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기적은 “우주의 기본적 법칙을 창조하신 초월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피조물에 행하신 지적인 간섭”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한 기적들은 우연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창조자의 이유 있는 간섭이다. 그 창조자가 있는 한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발생한 것이며 결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자연법칙의 초월자를 인정케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심오한 말씀이다. 이는 이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1장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1절에 이어 등장하는 창조과정은 철저하게 근본법칙과 위배되기 때문이다. 에너지의 근원인 빛을 창조시고, 다음 날 궁창으로 물과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 식물, 넷째 날 별들, 다섯째 날 살아있는 피조물인 동물, 여섯째 날 육지의 동물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까지 모두가 에너지나 물질의 자연법칙에 의한 것이 아닌 오직 이 법칙을 초월하신 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겐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의 기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히 1:3), 표적과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증언하시니(히 2:4)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 바다를 잔

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는 그분이 창조자이심(요 1:3; 골 1:16)을 드러내신 것이다. 진정한 구원자는 전능하신 분이여야 하며, 그 전능한 분은 오직 창조자뿐이다. 그분은 자신이 피조물 속에 심어놓은 우주의 법칙을 초월한 분이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자신이 창조자며 구원자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세례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대답하셨다(마 11:2-5). 즉 이 기적은 오직 창조주 만이 가능하며 자신이 그분임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창조자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자연주의적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연법칙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신화로 취급하거나 단지 의미만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창조주를 피조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그대로 받아들이л 때만 예수님을 창조자며 온전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과정에 등장하는 것 가운데 특이한 부분 하나가 발견 되는데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물질과는 전혀 다르다. 생명이라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 법칙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서 생명이 발생했다는 진화론적 설명이 왜 틀렸는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생명자체다. 오직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 즉 우주를 초월하신 분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특별히 마지막 창조된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피조물만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인정해야 비로써 접근 가능하다. 바로 인간 창조가 기적 중에 가장 특별한 기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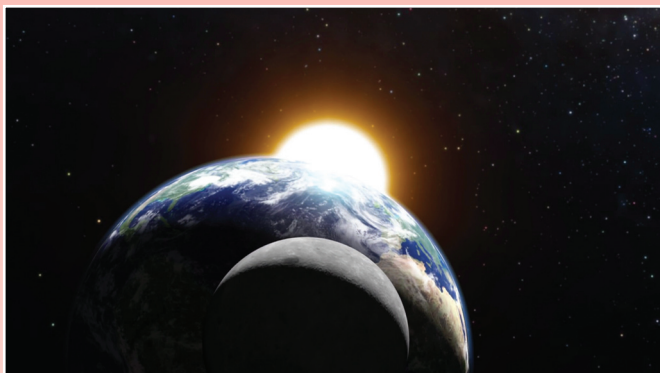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있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자가 생명을 갖게 되는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은 성경에서 몇 번 등장한다. 과부의 아들(눅 7:11-17), 야이로의 딸(8:40-56), 나사로(요 11:1-44) 등이다. 이는 분명 자신이 창조자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25)라는 말씀은 자신이 창조자며 구원자 임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임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죽었던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다. 이는 오직 창조주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은혜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기적은 반드시 존재한다. 기적에 관한 한 창세기 1장을 믿는 우리에게 누구보다 이해하기 쉽다. 우주의 법칙을 초월하신 지적인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언제든 자신의 뜻(will)에 따라 자신이 만든 이 법칙에 개입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에게까지 내려오셨고, 그 창조자의 능력을 보이시며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마 12:39)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여호수아의 긴 하루는?

성경의 기적 가운데 인상적인 기적을 꼽으라면 아모리 족속 동맹군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긴 하루’ 일 것이다(수 10:11-15). 이때 여호수아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본문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이는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일어났는가’라는 사실여부에 대한 문제다.

태양이 머물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구 적도의 둘레가 4만68km이며 24시간에 한 바퀴 돌므로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69 km(1,037mile)가 된다. 만약 자전이 갑자기 멈추었다면, 관성에 의해 전지구적으로 엄청난 재해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자전 속도가 점차 늦어지면서 멈춘 것이 유일한 가능성일 것이다.

지구의 자전이 점차 늦어졌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받는 부분은 바로 대기다. 관성에 의해 대기 순환에 큰 영향을 주며 대기가 불안정했어야만 한다. 대기가 불안정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광범위한 우박이다. 그런데 당시 전쟁 상황이 기록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큰 우박당이를 내리시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11절)고 기록된 점은 흥미로운 기록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 나라의 전설에서 낮이나 밤이 아주 길었던 건 기록이 발견되는 점이다. 성경 자체에서도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있지 않느냐?”(13절)고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힌두교, 불교, 중국, 고대 멕시코, 미대륙의 인디언, 폴리네시아인, 그리스 등의 전설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인상적인 공통된 기억이 남아있는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구와 해, 달,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안다. 사실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런 일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역으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초월하시고 창조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

****여호수아서의 ‘긴 하루’에 대한 그릇된 정보가 하나 있다.** NASA에서 컴퓨터로 계산을 하니 과거에 하루가 비었는데, 이 전쟁에서의 긴 하루와 히스기야왕 때 그림자가 뒤로 십도 물러갔던 기간(왕하 20:11)을 고려하면 딱 맞아떨어진다는 식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심각한 가정을 고려해야 될 뿐 아니라, 그렇게 계산할 수도 없다.

종류대로와 시냇물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란 단어가 무려 32 번이나 사용되었고 ‘가라사대’가 10번 사용되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엘로힘)’ 자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류대로’란 말이다. 생물들이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를 10 번이나 강조하신 것일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kind, 히브리어로는 min)’라는 단어와 교과서에 나오는 ‘종(species)’이란 단어는 의미와 의도에서 큰 차이는 없다.

두 단어 모두 다 ‘교배의 한계’를 의미한다. 굳이 차이점을 둔다면 ‘종류’는 ‘종’보다 한계가 훨씬 넓어 한 ‘종류’ 안에는는 여러 ‘종’들이 들어있다.

현재 생물 책에 각각의 다른 종으로 분류되어있는 호랑이와 사자는 서로 교배가 가능한데 그래서 태어난 것이 라이거나 타이곤이다. 늑대와 개 역시 다른 종으로 분류되지만 서로 교배되어 호주의 덩이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다른 ‘종’들이 교배하여 만들어 진 동물들로 ‘잡종(hybrid)’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까운 ‘종’ 사이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잡종’들에게는 생식능력이 있다. 서로 교배가 가능한 것을 ‘종’이라고 정의에 한다면, 그들은 모두 같은 ‘종’이지만 각각 다른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교과서에 있는 ‘종’ 분류 체계에는 상당한 오류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화: 한 나무

성경에서의 '종류(kind, min)'란 개념은 방주에 동물들을 태운 이유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창세기 7:3).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교배가 필수이므로 '종류'는 '서로 교배 될 수 있는 한계'로 정의 될 수 있다. 따라서 라이거나 덩고 등을 '잡종'이나 '혼종' 혹은 '혼혈'이라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모두 다 한 '종류(kind)' 안에서 생겨 난 변이체(variant)들일 뿐이다.

생물들이 진화되어 왔다면,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변하는 전이화석이 발견되어야 하지만 아직 이런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류를 변하게

하는 실험은 성공한 예가 없다. 유전자 보존의 법칙, 정보의 법칙, 열역학 제 2법칙 등의 기본법칙으로 볼 때 유전정보의 증가가 필수적인 진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생물들이 '종류대로' 창조 되었다는 성경 기록은 과학적으로도 흠잡을 수 없는 주장이다 (오른쪽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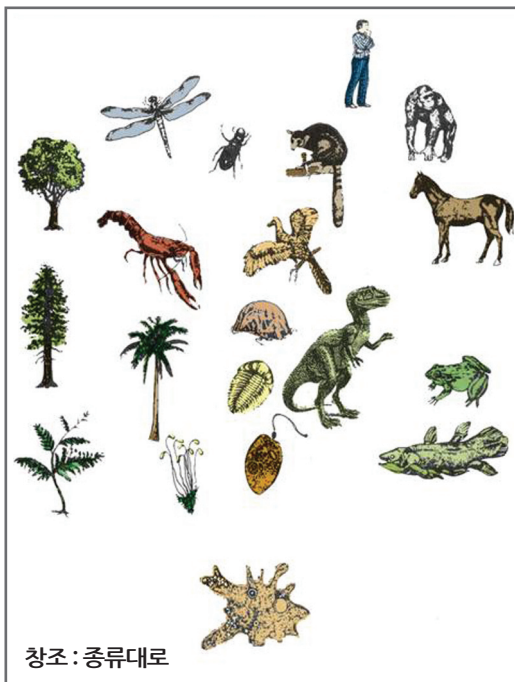
진화론은 최초의 간단한 한 생명체에서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로 진화되었으므로 가깝거나 멀 뿐이지 결국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친척이란 말이다 (왼쪽 진화나무 그림). 그러므로 모든 생물들은 서로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역시 다른 동물에 비해 특별한 존재로 여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들을 모두 '종류대로' 창조 하셨다고

10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한다(오른쪽 그림).

'믿음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한다. 즉 눈에 보이는 모든 '종류'의 생물들은 기존에 있던 것(나타난 것)이 변하여(진화)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 되었다는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 종류대로



라이라이거

2011년 12월, 암사자 한 마리가 중국 창주에 있는 양첸 사파리 공원에서 쌍둥이 타이곤을 낳았다. 타이곤(tigon) 또는 타이글론(tiglon)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가 교배해서 태어났다. 반면 라이거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로부터 태어난 동물을 말한다. 더 최근에는 시베리아에 있는 노보시비르스크 동물원에서 암컷 라이거와 수컷 아프리카 사자로부터 “라이라이거(liliger)”가 태어났는데, 이 라이라이거의 이름을 키아라(Kiara)라고 지어줬다. 이 키아라는 머리에 약간의 호랑이 줄무늬가 있는 황금색 털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이한 동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타이곤과 라이거, 그리고 라이라이거 모두 성경의 역사적인 문맥 안에서 아주 쉽게 설명된다. 요컨대, 사자와 호랑이는 모두 같은 고양이과의 조상으로부터 변이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교배가 가능하다. 물론 모든 고양이과 변이종들이 사자와 호랑이처럼 직접 상호교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변이 동물들 간 상호교배의 연속성(continuum of interbreeding varieties)에 따라 동물들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집 고양이들은 아프리카 야생 고양이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작은 야생 고양이와 쉽게 교배할 수 있다. 호랑이는 또한 표범과 교배할 수 있고, 표범은 퓨마와 교배를 한다. 그리고 퓨마는 또 몇몇 오셀롯(큰 살쾃이) 종과 교배하고 어떤 오셀롯은 일반 고양이와 또 교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교배의 가능성은 분화된 고양이과 동물들이 과거 같은 한 종류의 고양이과 동물로부터 단순히 변이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의 기록으로부터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고양이과 동물이 “그 종류대로”(창 1:25)로 번성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분은 또한 “번성하여 땅에 충만”(창 1:28)하도록 디자인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 동물들이 유전적인 변이를 사용해서 변화되는 환경에 빠르고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었을까? 최근에 몇몇 유전화학자들이 유전자의 한 패턴을 해독했다. 그들은 킹 치타의 유전자에 얼룩과 줄무늬가 있는 고양이의 유전자와 유사한 것이 있는지를 검사했다. 그 결과 같은 유전적인 변화가 두 동물 모두의 유전자에서 공통으로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유전적인 변화는 여러 다른 동물들의 평범한 줄무늬나 반점들이 각자의 독특한 얼룩 무늬로 바뀌도록 해왔는데, 이것은 유전적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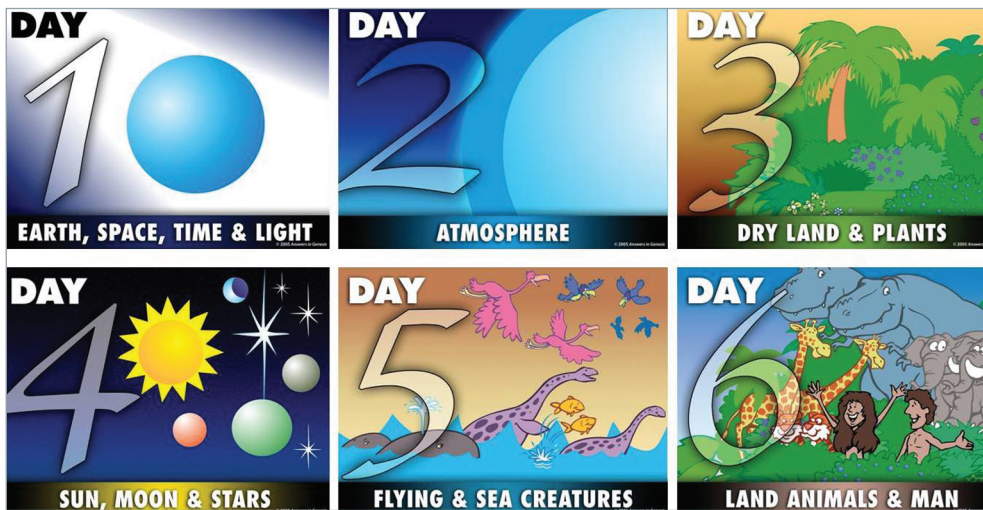
몸의 크기, 몸의 각 부분의 크기, 그리고 털의 색깔과 패턴의 차이는 마치 라이라이거 키아라의 털처럼 단지 한 세대 만에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변이는 진화론에서 말하는 고양이가 전혀 다른 동물로 변화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오히려 고양이과 동물들이 다른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변화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양이과 동물의 털 색깔 변이는 창조주의 예술성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종류 안에서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직후에 번식한 고양이과 동물의 모습들이 서로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학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에 진행된 한 연구팀에서 고양이과 동물의 교잡, 화석의 뼈, 분자생물학적 서열 데이터, 털 색깔의 패턴, 그리고 종 특이적인 바이러스 등을 분석한 결과 “모든 고양이과 동물들은 하나의 최초 종류로부터 나왔고, 현존하거나 멸종된 모든 고양이과 동물이 될 수 있는 적응 방산(adaptive radiations: 생물의 한 종류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하게 분화하는 현상)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결론지었다.

고양이과 동물들에게 각각 매우 독특한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름이 라이거든 또는 타이곤, 라이라이거든 언제나 그들은 고양이과 동물이었다.

출처: Thomas, B. 2012. *Lions and Tigers, Tigons and Ligers. Acts & Facts*, 41 (12): 17.

점진적 창조는 무엇이 문제인가?(2)



우주의 빅뱅기원

점진적 창조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현대 빅뱅이론이 사실이며 과학적 연구와 관찰에 의해 검증되었다고 가르친다. 휴 로스나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빅뱅 천문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기초가 된다. 이는 우주와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고 믿는 것이다. 로스 박사는 수십억 년의 지구 역사가 없다면 지구에 생명체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까지 말한다:

정확히 160억 년의 나이만이 무수히 많은 별들을 가진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생명이 발생 가능한 시간의 좁은 창이다.

생명은 우주가 120-170억 년 되었어야만 가능하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그는 가장 처음부터 생물을 위해 완전한 기능을 갖춘 우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마 19:26).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하루들

점진적 창조론자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하루가 오랜 기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로스 박사는 창조주간의 셋째 날은 30억 년보다 길다고 믿는

다! 이러한 주장은 진화론자들이 지구의 지층이 보여 준다는 수십억 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세는 성경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모두 문제가 있다.

창세기 1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6일간의 실제 날들 안에 모든 것을 초자연적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언급한다. 만약 이 본문의 단어들이 외부의 다른 사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맥과 정상적인 정의들에 맞추어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의 “날”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약 24시간의 정상적 하루를 의미한다. 이 설명이 적합하다는 것은 (하루와 함께 사용 하는) 숫자, “저녁과 아침”의 표현, 하루 즉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 등이 말해 주고 있다.

창세기가 진짜 역사라고 믿지는 않는 옥스퍼드 대학의 히브리어 행정 담당 교수인 제임스 발(James Barr) 박사는 창세기 1장의 언어만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창세기 1-11장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의도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대학의 히브리어나 구약학 교수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없다. a) 창조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24 시간의 날들과 같은 연속적인 6일 동안 일어났다. b) 창세기 족보에 담긴 숫자는 세상의 시작부터 성경 이야기에 있는 그 후세까지의 연대기를 단순히 합산한 것이다. c) 노아홍수가 전세계적이며 방주에 탔던 것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동물을 소멸시켰다.

성서 원문의 이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점진적 창조론자들은 과학적인 모순도 갖고 있다. 현대 과학의 측정 방법들이 진화론적이고 무신론적인 가정들에 기초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구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 그 방법들을 사용한다. 로스 박사는 빅뱅과 수십억 년을 말할 때, “자연에 있는 사실들”, “과학이 말하는 사실들”이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것은 그가 증거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진화론자들이 수백만년을 증명하려고 주장하는 과학적 “사실”들은 실제로는 “반성경적이고 철학적인 가설”로 선택된 관찰들을 해석한 것 들이다. 우리는 다 같은 사실들을 갖고 있다: 똑같은 생물들, 똑같은 DNA 분자들, 똑같은 화석들, 똑같은 지층들, 똑같은 그랜드캐년, 똑같은 달, 똑같은 행성, 똑같은 먼 별들과 은하들에서 오는 똑같은 별빛 등... 이들은 사실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그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그 사실에 대한 해석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역사에 관하여 믿는 바가 이 사실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할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역사는 성경을 틀렸다고 증명했다고 했던 소위 “과학적 사실들”에 의해 어지럽혀 져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수 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나서, 사실이 아니라 반성서 적인 가정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잘못 해석된 관찰들이었음이 드러났다. -다음 호에 계속.

안산동산교회 탐사여행

9/7-9/13, 2012

놀라운 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 돌아가서 창조과학과 관계된 서적을 구입해서 제 자신도 읽고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알리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 김송희권사

8개월이 된 제 손주가 창조과학 박사로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 허선희권사

앞장 선 목회자들이 속히 와서 말씀으로만 알던 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 성동숙권사

그동안 제가 수십 년 교회학교 교사를 하며 최선을 다해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쳤지만, 잘못된 것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성경이 얼마나 사실인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 김명자집사

하나님은 현실이며, 우리의 산 역사이며 미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여행이상이었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과 김인중목사님, 이재만선교사님 감사합니다. - 우영숙권사

도마와 같은 나의 신앙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셔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 이정애권사

초등학교 1학년 손녀에게 이야기 해 줄 일이 생겨 좋습니다.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창조과학탐사여행을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박상예권사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은 심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 저의 모든 가족, 그리고 셀, 지역, 교구, 모두에게 알려주고 권면하여 확실한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 박한미집사

내가 항상 갖고 있던 의구심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주신 이재만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힘들게 살도록 창조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 김은미집사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여행이 끝날 무렵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엉터리로 사람들을 가르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 보고 들은 대로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겠습니다. - 임명옥집사

교우들과 함께 오겠다는 말씀을 남편이 했을 때 의심을 했었는데, 이렇게 비전이 현실화된 것이 감격입니다. 참가한 교우들이 감격의 간증을 하는 것에 더욱 감사합니다. 더욱 성경을 사랑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 이재순(김인중 목사 사모)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한성희

와서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작품을 보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김용현

느끼고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한의석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 오효순

성경 말씀이 항상 아쉬움(모두가 이해를 못하니까)으로 있었는데,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너무 큰 것을 알았으므로 감격을 담고 갑니다. - 구애자

성경이 진화의 반대임을 확신과 당당함으로 다가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 최미자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조병욱

과학과 신앙의 만남의 결정체는 창조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동준 교사

세상 사람들은 그랜드캐년 계곡을 바라보며 환경과 세월이 만들어 냈다고 믿고 감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눈으로 보며 감탄에 환호를 지릅니다. - 전창규

모든 이에게 확신을 전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고 갑니다. - 이명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 동안 말씀을 증거하며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 홍현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임을 깨닫고 돌아갑시다. - 김태연

여행을 오기 전에는 진화론과 창조론 가운데 갈등하고 있었고, 창조론을 믿고는 있었지만, 증거와 정확한 이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 이제 제가 친구들에게 전파하고 진화론을 믿는 친구들을 설득시키겠습니다. - 김형규

믿고자 노력하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씩 꼭 참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남은 생애가 너무 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 김 희

창조론은 신화적인 이론이고 허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이제 창조론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계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이원국 집사

의심이 많고 확신 없는 남편이 성경이 믿어진다고 고백하는 말에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제 자녀를 탐사여행에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 정경애 권사

당당하고 용기 있는 선교사님의 탁월한 신앙의 말씀 감동이었습니다. - 김종훈 집사

고등부교사 입장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고 배운 것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 정경숙

● 요약되지 않은 원문은 홈 페이지(www.hisark.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 1/1 인랜드 순복음 교회(이재만), CA
 1/2-4 창조과학 탐사여행 (얼바인 온누리교회), E.M. 김선욱
 1/2-4 유학생 탐사여행 (15차 유학생, 신학생), 이재만
 1/2-11 World Mission Univ. 겨울특강(최우성), CA
 1/6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1/7, 8 World Mission Univ. 겨울특강(이재만), CA
 1/13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1/20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1/21-24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기감도봉지방교육부 비전트립), 이재만
 1/27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1/28-30 창조과학 탐사여행 (YWAM), 이재만
-
- 2/6-9 빙하시대 탐사여행 (한국 CEO), 이재만
 2/15-17 오클라호마 노만 한인침례교회(이재만), OK
 2/18-21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구촌교회), 이재만
 2/25-28 창조과학 탐사여행 (Worship Leader), 이재만
 2/25-6/18 베데스다대학교 강의 (매 주 화요일 8:00 -10:30pm, 최우성), CA
-
- 3/1-25 한국 방문 (이재만), 한국
 3/2-3 이한교회 (이재만), 한국
 3/9 대전온누리교회 (이재만), 한국
 3/10 행복한교회 (이재만), 한국
 3/11 동산고등학교 (이재만), 한국
 3/12 전주대학교
 3/13 한동대학교
 3/16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이재만), 한국
 3/19 전주대학교
 3/20 한동대학교
 3/23-24 명동교회(이재만), 한국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 / hisark@gmail.com